

LG '엑스붐' 美·印 음악축제로 파워풀 사운드

LG전자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홍보 나서

LG전자가 글로벌 음악축제를 후원하며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인 '엑스붐(XBOOM)' 홍보에 나섰다. LG전자는 파워풀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고출력 오디오에 적용해 온 엑스붐을 오디오 대표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LG전자는 현지시간 9일 뉴델리 최대 공연장인 시리포트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8 창원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인도' 후원사로 참여했다.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5월부터 6월까지 인도 10개 도시에서 진행된 예선 통과자 가운데 한국 창원시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인도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2000여 명의 관중이 객석을 가득 채워 성황을 이뤘다. LG전자는 공연장 내 고출력 오디오 엑스붐 체험공간을 마련해 공연에 참가한 케이팝



현지시간 9일 저녁 2018 창원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인도' 공연을 보기 위해 인도 뉴델리 시리포트 오디토리움을 찾은 케이팝 팬들이 LG 엑스붐 오디오의 강력한 사운드를 즐기고 있다. /LG전자

팬의 호응을 얻었다.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음악축제에 참여해 프리미엄 오디오 체험 마케팅을 강화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교보생명 '신용호 보험학술대상' 시상

교보생명은 세계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신용호 세계보험학술대상' 수상자로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의 알렉산더 보너트, 알브레히트 프리체와 호주 국립대학의 셸리 그레고르 교수팀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8 세계보험협회글로벌인슈어런스포럼'에서 신용호 세계보험학술대상을 수상한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의 알렉산더 보너트 교수(왼쪽 두번째), 알브레히트 프리체 교수(왼쪽 세번째)가 신장재 교보생명 회장(왼쪽 첫번째), 마이클 모리세이(Michael Morrissey) 세계보험협회(II S) 회장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이들은 '보험 산업의 디지털 아젠다: 통합적 접근법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보험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연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비씨카드 나누다키친과 빅데이터 MOU

비씨카드는 스타트업 나누다키친과 빅데이터 상권 분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씨카드, 스타트업 나누다키친과 빅데이터 상권 분석 협력. /비씨카드

나누다키친은 예비 창업주에게 '쉐어스토어(Share-store)' 플랫폼 서비스로 창업공간을 연결해주고, 메뉴 개발, 마케팅 지원, 매출 및 정산 관리 등 통합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비씨카드는 나누다키친의 신규 출점 지역 상권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LG화학 초등학생 위한 '주니어 공학교실' 개최



지난 6일 LG화학 임직원들이 미국 LG사이언스파크 인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니어 공학교실'을 실시했다. /LG화학

LG화학은 임직원들의 역량을 활용해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니어 공학교실은 LG화학이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석·박사급 연구원들을 비롯한 LG화학 임직원들이 사업장 인근의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 평소 접하기 어렵던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일에는 마곡에서 근무하는 LG화학 중앙연구소, 디스플레이재료사업부, 지원부서의 임직원들이 '밝은지역아동센터'를 찾아 LG화학의 제품을 이용한 과학 키트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오늘의 운세 7월 11일 (음 5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믿음 갖고 기다리면 실망하지 않는다. 60년생 흰색, 숫자 9가 오늘 행운을 준다. 72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실속은 많지 않다. 8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때가 무르익었다.
- 소** 49년생 용띠, 닭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61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 73년생 고집을 세우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85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
- 호랑이** 50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술술 풀린다. 62년생 사공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려워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74년생 어려운 일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자. 86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와 위로를 준다.
- 토끼** 51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불이 멀지 않았다. 63년생 우물이 곁에 있어도 두레박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 75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87년생 좋은 결과는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니 바른 사고를 지녀라.
- 말** 52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 되는 것. 64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생긴다. 76년생 쉽게 지치지 쉬는 날이니 주의. 88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뱀** 5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65년생 유래, 상쾌, 통쾌한 하루. 77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할 때이다. 89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라.

- 말** 54년생 지금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 법. 66년생 지고도 이기는 것이 있으니 때로는 저 주는 것도 한 방법. 78년생 행운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90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
- 양** 55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려운 하루. 67년생 사소한 일로 안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79년생 조금함이 회를 부른다. 91년생 남동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 원숭이** 56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68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마음이 불편한 하루. 92년생 능력 이상의 일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 날.
- 닭** 57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69년생 주변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 81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93년생 계획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 개** 58년생 예의 바른 행동은 나를 높여준다. 70년생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지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 82년생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94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니 이보다 즐거울 수 없다.
- 돼지** 59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71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이다. 83년생 항상 태양이 떠 있음을 잊지 마라. 95년생 남의 도움을 받게 되니 시비도 생길 수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3					
7	5							1
		4	5		1	2		
5				3	6	9		
						4		2
2				1	4	3		
		5	4		9	1		
3	7							9
	9		6					

	1							
3			4			5	1	
						4		
	8					7	2	9
				2		4	5	
					1			8
	7	5	9				8	3
	6		8	7		2		
			5	6	3	9		

스도쿠 정답								
5	2	4	8	9	1	6	7	
6	7	8	2	5	1	9	4	3
3	9	1	6	4	7	5	2	8
9	5	1	7	1	6	8	2	
2	4	5	6	8	3	1	9	
8	1	6	9	3	2	7	5	
4	8	2	1	9	5	7	6	3
1	9	8	7	6	2	5	4	
7	6	5	4	2	8	9	1	
7	1	6	3	9	5	1	2	8
1	5	2	7	8	9	6	4	3
3	8	9	2	1	6	5	4	7
8	9	1	6	4	2	7	5	3
5	7	1	8	2	9	6	3	4
6	2	4	5	7	9	8	1	
9	6	7	4	1	8	5	2	
2	1	5	9	8	7	4	6	3
4	8	6	5	2	7	1	9	

김상회의 四季 생각과 다투지 마라

이 세상은 주관과 객관이 존재한다. 즉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그러나 그 현란한 세상도 내가 없으면 더 이상 세계가 아니다. 문제는 이 주관과 객관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의미는 업과 의도 때문이라고 불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모두가 신의 뜻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뭇가 부족하고 허전함을 느껴서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이브)를 만드셨다. 뭇가 부족해보였던 존재로서의 아담은 하와가 있음으로 비로소 완벽해졌음을 보고 심히 행복해하셨다는 내용이 구약성서에 나온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법칙이다. 음과 양이 더불어 조화를 이룰 때 존재는 안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법칙은 위협을 받게 되고 균형이 깨어져 고통을 야기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존재로서 완벽한 이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생각이다. 생각이 생각에 연이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그릇된 생각과 상념을 망상이라 하지마는 기실 생각이 너무 많은 데서 기인한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행복의 조건과는 먼 생각과 행동들을 한다. 행복의 기준은 타인의 기대에 맞춰져 있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욕구에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곳에 여행을 갔는지, 거기서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이 알려진 일에 여념이 없다. 이 모두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일의 부산물이다. 도대체 나에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며 무엇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 내 스스로 느끼는 여유와 자족감이 진정 있기는 한 것인가? 나에게 보여줘야만 나의 행복은 확인되는 것인가? 이런 사회현상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 명상 열풍 또한 상생일로다. 그만큼 피로해 진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보여주느라, 남에게 인정받느라 사실은 내심 모두 지친 것이다. 명상은 여러 전통과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에서도 깊은 묵상의 전통이 있다. 더 먼저는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 때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수행으로서의 명상 체계는 불교의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대표적일 것이다. 명상수행의 목적은 생각을 멈추기 위함이다. 사념이 끊겼을 때 우리의 무의식은 본래의 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